

●20세기소설영화독본, 2025년 상반기 프로그램 공개

# 책 읽고, 영화 보고, 토론하고... 인간·세계 대한 생각 폭 넓히기



## 15일 첫모임 '돈키호테' 시작으로 13편 소설·영화 다뤄

올해로 17년째를 맞은 광주의 대표적 인문학 모임 '20세기소설영화독본'이 2025년 을사년 상반기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20세기소설영화독본"은 영화인 조대영 씨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 근무할 당시 설립했다. 2009년 1월 모임을 시작해 현재까지 2주 간격으로 소설을 읽고 만나 영화를 본 후 토론을 이어가며,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올해 첫 작품은 세계문학사에서 가

장 영향력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는 '돈키호테'다.

이상주의자인 돈키호테와 현실주의자인 산초가 등장하는 모험소설로, 인간 본성과 함께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현재까지도 꾸준히 읽히고 있는 작품이다. 영화 '돈키호테 맨 오브 라만차'는 세르반테스의 원작 탄생 400주년 기념작으로 돈키호테와 산초의 기상천외한 모험을 풍자와 해학으로 그렸다.

두 번째 시간인 2월5일에는 '헬프'를

만난다.

캐스린 스토크이 쓴 '헬프'는 40여 개국에서 번역 출간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1960년대 초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각기 개성이 다른 세 여자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테이트 테일러가 연출하고 엠마 스톤과 비올라 데이비스 등이 출연한다.

2월19일 만나볼 소설과 영화는 '흐르는 강물처럼'이다.

원작은 전 시카고 대학 교수였던 노먼 매클린이 자신의 실화를 토대로 1976년에 출간했으며, 가족 간의 사랑과

아름 그리고 인생의 참 의미를 담았다. 이에 기반한 영화는 미국 몬태나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두 형제의 대조적 삶이 전개된다. 동생 역을 맡은 브래드 피트는 영화를 연출한 로버트 레드포드를 빼놓은 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3월5일에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와 함께한다.

휴버트 셸비 주니어가 쓴 원작은 1950년대 미국 브루클린 하층민의 삶을 극사실적으로 묘사해 독자들을 충격에 빠트린 작품이다. 선정적인 원작을 다소 순화하긴 했지만 영화 역시 강렬한

이야기와 인상적인 캐릭터, 현실감 넘치는 연출이 화제가 됐다.

이후 시간에 만나게 될 작품들은 '가여운 것들', '케빈에 대하여', '육방이라는 이름의 전차', '붉은 수수밭', '디파니에서 아침을' 등으로 이들 작품 역시 원작과 영화의 명성이 높다.

"20세기소설영화독본"은 광주극장 뒤편 '영화의 집'에서 격주 수요일 오후 7시마다 모임이 열린다.

모임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책을 읽고 '영화의 집'을 방문하면 된다. 문의 010-4660-5792.

/최명진기자



## 광주과학관 공룡동산 새단장

국립광주과학관이 새해를 맞아 본관 1층 공룡동산을 새단장했다.

과학관은 공룡동산에 살아있는 듯한 움직이는 공룡 3종을 새롭게 배치하고 당시의 육상환경을 반영한 중생대 백악기 디오라마 연출을 보완해 관람객들에게 생동감있는 전시를 선보인다.

새롭게 추가된 공룡은 전남 보성에서 발굴된 후 최초로 우리나라 이름과 지명이 붙은 공룡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 경기도 화성에서 발견된 원시 각룡류인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몽골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프로토케라톱스'로 전문가 고증을 거쳐 작동모형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지난해 '다이노월드' 공룡 특별전에서 호평을 받았던 공룡백과를 함께 배치해 관람객 참여를 높였다.

공룡동산 개선을 담당한 장효정 연구원은 "올해는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를 주제로 한 특별전과 자연사관 조성을 통해 새로운 볼거리를 연이어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 ACC재단, 노인 문화복지 향상 '한뭉'

어르신 대상 '양반극장' 확대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노인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재단은 지난달 28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광주지회(지회장 이원영)와 노인 문화에

술복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영화 상영 등 문화예술행사 연계 추진 ▲양 기관 사업에 대한 상호 홍보 및 지원 등을 위해 상호 교류 및 협력하기로 했다.

두 번째 시간인 2월5일에는 '헬프'를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르신들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뜻깊은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CC재단은 올해 노인 문화에 술복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영화상영 프로그램 'ACC 양반극장'을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5회에 확대해 개최할 예정이다.

/최명진기자

## 새해 여는 황승옥 가야금병창 독주회

11일 전통문화관 서석당 무형유산보유자 황승옥 가야금 연주자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여는 가야금 독주회를 연다.

오는 11일 오후 3시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열리는 이번 독주회는 단가 공명가로 서막을 연다.

이어 우리에게 익숙한 심정가·춘향가·수궁가·흥보가 등 판소리 대표 작품을 선사한다.

신청가에서는 방아타령, 천지신령, 예소맹이, 감은 눈을 얼씨구나 절씨구 대목을 선보이며 춘향가에서는 진양사랑가, 중모리 사랑가, 속대머리를 들려준다.

수궁가는 탐상을 탕탕, 뜻밖의 현운,

여뵈라 주부야, 여보나리, 고고천변 등을 연주하며 흥보가에선 중내려온다, 구만리, 제비점고, 제비노정기 대목을 감상할 수 있다.

이날 사회는 유영대 전북도립국악원장(고려대 명예교수)이 맡으며 제37회 전국고수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태영 씨가 고수로 나선다.

황승옥 연주자는 "판소리 다섯바탕 중 레퍼토리 확장 대목 전형과 기존 원형은 대목을 준비했다"며 "새해에도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승옥 연주자는 전남대 예술대학 국악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보유자이며 1995년

/최명진기자



전주대사습 가야금 병창 장원, 2001년 경주신라문화제 전국국악제전 대통령령상을 수상했다. 현재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최명진기자

#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휴집  
외벽·독채·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 재료를 염색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 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공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